

시론



오수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광주유학대학 학장

오희길(吳希吉)과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亂中日記), 동의보감(東醫寶鑑) 등과 함께 근세에는 광주5·18관련 기록물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록물들을 꾸준히 등재시켜 현재에는 모두 16개의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보유한 기록문화의 선진국이 되었다.
이 가운데 조선 태조(太祖)에서부터 철종(哲宗)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 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은 그 방대성, 체계성, 객관성, 원본(原本)의 보존 등에 있어서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뛰어난 기록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자칫 병란(兵亂)에 휩싸여 유실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우리 후남의 미관말직(微官末職) 관리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 보존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가 임진왜란 당시 전주(全州)의 경기전(慶基殿) 참봉(參奉) 오희길(吳希吉)이다. 경기전은 조선을 개창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을 모시는 곳으로, 참봉은 그곳의 부책임자로 종9품(從9品)직이니 지금으로 치면 9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자리이다.
그러한 그가 1592년 임진왜란에 당하여 왜군들이 호남의 수부(首府)인 전주를 함락시키기 위해 금산(鎭山)까지 진격해 오는 상황에

서 전라도관찰사 이광(李洸) 등과 회의를 열어 자신의 책무인 태조 어고로 제작되었고, 1616년 8월 허균 주사(全州守庫)에 보관중인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소를 물색키로 하였다.
오희길은 무사(武士) 김홍무(金弘武), 수복(守僕) 한춘(韓春) 등과 함께 최적의 장소를 찾고 결과 정음(井邑) 내장산의 은적암(隱寂庵)과 용굴암(龍窟庵)으로 결정하였다.
마침내 그해 6월 왜군이 전주를 압박해오자 전라도관찰사 이광은 어진과 실록의 운반을 서두르는데 관원(官員)인 오희길 외에 지역의 유사(儒士)인 태인(泰仁)의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錄)이 그 임무를 자임하였다.
이 두 사람은 사재를 털어 실록과 어진을 옮기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의(당시 64세)는 227일, 손홍록(당시 56세)은 196일을 집안일을 팽개친 채 산속을 오가수직(守直)하였다.
본관이 나주(羅州) 노성군(羅城君) 오자치(吳自治)의 후손인 오희길은 부친이 고창으로 이거(移居)하였으나, 24세 때인 1579년(宣祖 12年) 집터가 향교를 짓는데 좋은 곳이라며 매도를 청하자 흔쾌히 내어주고 누님이 살고 있는 순창군 금곡면으로 이거하였다.
왜란이 수습된 후 어진과 실록을

지켜낸 공으로 1615년 1월 태인현감(從6品)에 제수되었으나 6월 무고로 체직되었고, 1616년 8월 허균의 무고로 거제도도 귀양가 1625년(仁祖 3年) 그곳에서 70세로 사망하여 순창군 금곡면에 묻혔다.
고창군 아산면 반월리에 그의 사우를 모신 금암사(琴巖詞)가 있기는 하지만 정작 순창군의 묘소는 오늘날 돌보는 사람이 없어 보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11일 광주유학대학의 교수·학생들이 그곳을 찾았을 때 근처 어디에도 안내판 하나 세워져 있지 않았고 진입로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봉분에 나무가 자라는 등 방치되어 있었다.
학생들이 문화재청과 순창군청에 실상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한 결과, 추석 무렵 순창군청에서 말끔히 벌초하여 그 사진을 보내왔다. 우리의 위대한 기록문화유산을 지켜낸 업적과 요즘 사라져 가는 애국정신을 고려할 때 그의 묘소는 충분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으며 나아가서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북도 순창군에 속하지만 담양군 금성면과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그의 묘소에 대해 우리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이러한 일들이 결국 애국·애족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다.

社說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남긴 것

2022년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됐다.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의 소임을 부여받은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을 조속히 수습하고 원팀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부터 나서야 한다. '명남대전'의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손을 내밀어야 하겠다.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의 요구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렸던 이 후보는 졸풍 대세론을 이어간 끝에 과반 득표에 성공,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40여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야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2차 컷오프를 통해 4명으로 최종 압축, 본경선을 광주에서 시작했으며 정의당과 국민의당, 제3지대 주자들의 체제도 분주한 상황이다.
이 후보는 마음을 열어 포용과 개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다. 무효표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 제기 등 당내 혼란을 먼저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세엔 민주당과 함께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도층 확

장의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리스크인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해결, 코로나19로 무너져가는 서민경제의 회복도 시대적 과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비전도 진정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호남의 미래를 견인하기 위한 공약이 중요하다. 광주는 군공항 이전, AI 기반 조성,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산업 육성을, 전남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산업 유치, 의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분야 확충 등이 대표 현안이다. 사실 그동안 주자들이 내놓은 내용은 대동소이한 만큼 구체 실행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호남은 민주진영의 심장이다. 이 후보는 지역 경선에서 유일하게 이 전 대표의 아성인 광주·전남에서 패했지만 차이는 미미했다. 이길 사람을 미는 '전략적 선택'이다. 야당은 대장동 논란을 앞세워 정권 교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의 '원팀 정신'이 훼손된다면 승리를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 가뜰이나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 경기지사직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 재수 끝에 대권에 도전한 이 후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목포에 개원한 한국심진흥원 성공을 바라며

목포 삼학도에서 최초의 섬 전담기관인 '한국심진흥원'이 공식 개원,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은 우리나라 섬 정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실제 섬진흥원은 3천300여섬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 업무를 한다. 관련 부처들과 효과적으로 협업·연계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섬진흥원에 지역별 전담부서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시책 발굴에 주목하고 있다. 2천165개의 섬을 품은 '섬의 수도' 전남은 대한민국이 '섬의 메카'로 발돋움하도록 섬진흥원의 활동을 힘껏 도와야 한다. 섬진흥원은 전남도와 목포시의 세계 최초 섬의 날 제정 제안, 제1회 섬의 날 행사 개최 등 그동안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지난 4월 삼학도로 유치 확정됐다.
섬진흥원은 경영지원실, 기획연구실, 진흥사업관리실 등 3실 8팀 35명의 정원으로 운영

하며, 추후 50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초대 이사장에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 원장에 오동호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임명됐다. 건물 1층 전시·홍보관에는 지자체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에서 기증·대여한 섬 관련 유물, 사진 등을 전시한다. 2층은 연구공간이다. 3층은 추가 국비 확보를 통해 학술회의, 인제 양성 교육 등 섬 연구교육의 중심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섬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공간에 진입했다. 말 그대로 섬진흥원은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지금껏 소외됐던 섬의 진흥을 이끌게 된다. 섬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섬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성실 이행해야 한다. 전남도와 목포시, 섬을 보유한 지자체의 관심도 필요하다. 조속히 조직을 안정화해 가까운 시일 내 최고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

자치칼럼



김용민
송원대학교 교수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주민자치! 주민의 안전부터

이유인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이용인과의 갈등 때문에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종사자는 폭력 등 위협에 대해서 기관에 보고하는 비율이 60%에 불과하고 40%는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비율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조사에 의하면 기관의 대응유형을 보면 놀람게도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가 24%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해당 클라이언트를 조치하는 수준이었으며, 담당업무를 변경하거나 의료적·물리적 조치나 휴식과 전문상담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기관의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협을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관에서 도어락 및 개인용 사무기기에 대한 잠금장치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종사자는 CCTV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협발생시 비상전화번호와 대응절차에 대한 숙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직원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종사자 개인 차원에서 업무 중 폭력이 발생하면 예방·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며, 팀에서 해결책을 상의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폭력사건을 경험한 후에 감정이 몹시 상하거나 불안을 느낄 때 동료나 슈퍼바이저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종사자는 자신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 차원에서는 폭력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폭력피해 예방·관리 담당자가 주도하여 기관 차원의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침착한 대응으로 제2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소 사고에 대한 예방훈련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거나 기관 차원에서 심리적 지지와 치료,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기관과 사회복지종사자간에 신뢰를 갖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영역이 확장되면서 복지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제가센터, 요양원,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청소년 교육 등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고용과 노동을 위해서는 광주시의 특별한 지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삶의 질의 개념 안에는 주거, 교육, 교통,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안전이 전제되지 않는 삶의 질은 기초가 부실한 주택과 같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은 우리가 사전에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구리를 유리컵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는 움직임이 없다가 어느 순간 죽어버린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재산이 많으니까, 우리 조직은 매출이 높아 잘 나가니까, 우리 지역은 도둑이 없어 안전하니까 등 안일한 생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리컵에 든 개구리처럼 큰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광주시가 주민자치 1번지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이 담보된 주민자치, 지방자치기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이 안전한 자치가 진정한 주민자치의 모습이다.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드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영화 통해 본 테러 패러다임의 변화

넷플릭스의 일상화에 따라 드라마,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넷플릭스 유저라면 2019년 개봉작 영화 '호텔 뽀빠이'를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 영화는 2008년 인도 뽀빠이에서 일어난 테러에 대한 영화다. 10명의 테러범들이 인도 뽀빠이 호텔에 침투해 무고한 시민 200여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했다. 테러 시작 60여시간 만에 모두 진압하고 테러범 10명 중 9명은 사살, 1명은 생포했으며 비둘기진 종교관이 낳은 참극이었다.
영화를 보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미흡한 뽀빠이시의 대처와 변화된 테러 패러다임이다. 뽀빠이시는 테러 대비가 잘 돼 있지 않아 전문 요원이 13시간 만에 도착



했으며 테러 후 테러범들을 일시적인 것과 달리 뽀빠이 테러는 테러범들이 장시간 버티면서 살상을 최대한 많이 하는 형태였다.
시대가 변화에 따라 테러의 유형과 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테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은 피해자들의 슬픔만 가중시킬 뿐이다. 항상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영진·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스토킹 처벌법' 강력사건 사전 예방 기대

최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피해자와 가족 등 3명의 목숨을 앗은 사건이 있었다. 일명 '세 가족 살인사건'이다.
그동안 스토킹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으며 관련 처벌 조항은 경범죄처벌법 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했다. 오는 21일부터는 상대방에서 원하지 않는 관심 표현으로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



고 흥기로 위협할 경우 처벌이 더 중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 현장 조치와 위협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범죄 발생 전 단계부터 선제적 치안 활동이 가능해졌다. 스토킹은 살인, 성폭력 등 중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인성이 큰 행위이며 가족이나 주변인 누구나 이러한 스토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윤홍승·담양경찰서 홍보담당>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물어는 詩
바위와 소나무
김영재
바위와 소나무 함께 못 살 것 같지만 바위에 솔씨 떨어져 말없이 밀어붙여 신랑이 신부를 맞듯 바위가 몸을 연다
(시집 '하말라야 집문', 책만드는집, 2016)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주)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정취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화부 650-2065 지역특집부 650-2060 사설실 650-2006 T V 본부 650-2009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